

CHINDIA의 성장이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SMIC Research Team #2

강동수, 오대석, 이정욱, 황준호, 황윤희

I. 들어가며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독감에 걸린다.’ 라는 말은 한국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한눈에 잘 알게 해주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눈 여겨 볼만한 또 다른 말이 사회에 떠돌고 있다. ‘중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전세계가 독감에 걸린다.’ 라는 말이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작은 국가다. 다른 국가의 경제, 특히 주 교역국의 경제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중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아직까지는 중국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으나 몇 년 후엔 더욱 큰 비중으로 세계경제에 다가설 국가로 인도를 꼽고 있다. 시작은 늦었지만 무서운 속도를 쫓고 있는 인도. 수 십 년 안에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의 가능성에 주목해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곧 한국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행사하는 영향력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 두 나라가 모두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이다. 이는 서구가 가져왔던 경제권력이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 상황 속에서 아시아의 한 국가로써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증권시장이 받게 될 영향을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중국과 인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CHINDIA와 한국 증시

1. 왜 CHINDIA(친디아)인가?

CHINDIA(이하 친디아라 함)는 영국의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단어로 중국(China)과 인도(India)의 합성어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05년 세계 대전망에서 “친디아가 21세기의 리더가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후 친디아는 누구의 입에나 오르내리는 친근한 용어가 되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친디아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Emerging Market들 중 특히 눈 여겨 보면서 이 두 나라가 제 3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파워로 인식했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친디아는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1.1 현재의 친디아

현재까지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중국이 그나마

급성장세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인도는 이제서야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인디아의 경제력>

인디아의 경제력

(2003년 기준)

	인 구 (억명)	면 적 (만km ²)	GDP (억 달러)	수 출 (억 달러)	수 입 (억 달러)	1인당GDP (달러)
중국	12.92	959.8	14,098	4,385	4,131	1,091
비율(%)	20.7	7.2	3.9	5.9	4.6	18.7
인도	10.65	328.7	5,535	563	702	520
비율(%)	17.0	2.5	1.5	0.8	0.8	8.9
세계	62.52	13,387.5	364,172	74,215	88,993	5,825

출처 : 자료 : Global Insight(2004), World Overview, Third Quarter 2004.

World Bank(2004), World Development Report 200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와 중국의 GDP는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실정이다. 실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GDP의 6~7%내외이다. 두 나라의 무역 규모 역시 1조 달러를 조금 넘는 세계 대비 7%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1인당 GDP를 보면 두 나라 모두 세계평균을 밑도는 저개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로 보면 세계전체의 37%, 국토는 10%에 달하는 거대국들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2 급속한 성장

그러나 아직은 미약한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디아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무서운 성장력을 가지고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유럽과 미국, 일본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국가의 성장률은 2~3배에 이르고 있고 이런 성장률이 꾸준하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다.

중국과 인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세계평균을 훨씬 웃도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따른 노동력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 닦아 놓은 경제성장의 길을 풍부한 인적자원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으로 달려가는 이 점등이 두 나라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이라고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이 두 나라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20여 년간 5%가 넘는 고성장을 보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경제권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2001~2010년	2.85	2.9	5.05	7.85	6.1	5.25	3.0
2011~2020년	3.0	3.0	3.6	6.05	5.3	3.75	3.45
2021~2025년	2.9	2.9	2.6	5.9	5.0	3.2	3.3

자료 : Global Insight(2nd Quarter 2005), 'World Economic Outlook'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는 수 십 년 내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매해 전망이 나올 때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40년경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2050년이 넘어서면 미국을 따돌릴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측은 너무 먼 미래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는 않으나 그만큼 중국과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세계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2. 친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

친디아 경제가 주목 받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추진해 온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적 정책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수출확대가 역시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이 나라들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2. 1. 개혁, 개방의 정부정책

2. 1. 1. 중국

중국은 개방정책을 제기한 이래 꾸준히 시장지향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199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 속에 집약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소유와 분배에 시장논리를 도입한다는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의 주식화와 집단농장의 해체, 조세 및 금융제도 개혁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이용되었다. 또한 무역의 국가독점과 외국인투자, 관광, 차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특구, 경제 기술 개발구를 설립하는 등 대외적인 개방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고 기존의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 1. 2. 인도

인도의 경우는 1991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개입 하에 신경제정책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 개입 축소와 대외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던 산업인가제도를 철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수입 자유화, 외환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해 왔다. 이 정책은 당초 국민회의 집권 시 도입되었으나, 이후 정권이 교체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 2. 외국인 투자 유입과 수출 확대

최근 인디아의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의 유입에 의한 산업성장과 수출 드라이브에 힘입은 바 크다. [표1]에서 보듯이 중국과 인도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크게 늘어왔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0년대 후반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2년부터는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5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세계1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 되었다. 인도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0년대 후반에 20억 달러를 넘어서었다. 다시 2001~2002년간에는 3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03년에는 43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표1 - 인디아 와 세계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유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2~97 연평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	32,799	45,463	40,319	40,715	46,878	52,743	53,505
인도	1,676	2,633	2,168	2,319	3,403	3,449	4,269
러시아	2,018	2,761	3,309	2,714	2,469	3,461	1,144
브라질	6,615	28,856	28,578	32,779	22,457	16,590	10,144
BRICs	10,777	79,713	74,374	78,527	75,207	76,243	69,062
미국	60,268	174,434	283,376	314,007	159,461	62,870	29,772
일본	1,225	3,192	12,741	8,323	6,241	9,239	6,324
독일	6,042	24,593	56,077	198,276	21,138	36,014	12,866
영국	19,527	74,321	87,979	118,764	52,623	27,776	14,515
프랑스	19,779	30,984	46,545	43,250	50,476	48,906	46,981
한국	1,298	5,039	9,436	8,572	3,683	2,941	3,752
선진국	180,750	472,545	828,352	1,107,987	571,483	489,907	366,573
개도국	118,596	194,055	231,880	252,459	219,721	157,612	172,033
세계	310,879	690,905	1,086,750	1,387,953	817,574	678,751	559,576

자료 :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http://www.unctad.org>

주 : 1) 세계합계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s)과 석유수출국들이 빠져 있음. 이들 국가군은 따로 집계되고 있음.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방정책 초기부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각 산업 부문이 빠른 성장과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두 나라 경제의 이룩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54.8%, 수입 56.2%로 전체 교역량의 50% 이상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에 의한 무역흑자가 8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는 이 비중이 각각 28.7%, 45.8%로 182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지향적인 산업 활동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수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줄곧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개방정책 초기인 1979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던 수출은 199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5934억 달러를 기록하여 25년 만에 무려 44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FDI가 매우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도 개방정책 도입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각 산업 부문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특히 최근 인도 경제의 성장을 상징하는 IT산업의 빠른 발전에 외국인투자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FDI는 자동차, 통신 등 각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 경제의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 역시 증가하였다. 인도의 수출은 1990년대 연평균 9.0% 증가한 데 이어 2000~2004년간에도 연간 12.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연간 20% 이상 증가하여 수출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만 해도 0.4%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5.8%로 늘어났고, 2003/04년에는 다시 10.4%로 늘어났다. 수출금액은 1987/88년에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2/03년에 527억 달러, 그리고 2003/04년에는 63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즉, 외국인 직접 투자는 수출 확대로 이어져 인도 경제의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2 - 인도의 수출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가율
중 국	1,949	2,492	2,661	3,256	4,382	22.5
인 도	343	383	442	434	527	11.3

자료 : UNCTAD/WTO, *Trade Analysis System on Personal Computer*.

2. 3. 인구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력 증가로 반영되고 있는 세계인구의 변동 추세이다. IMF(2004)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끼치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1인당 GDP 등의 거시지표와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에서 보듯이 전체인구 가운데 노년층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지표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이 유지되는 개도국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표3 - 인구변동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1인당 GDP	저축/GDP	투자/GDP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경제활동인구 비중	0.08	0.72	0.31	0.05	0.06
노년층 비중	-0.041	-0.35	-0.14	-0.25	-0.46

자료 :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4*, p. 143.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의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자체가 인디아 경제의 부상에 커다란 동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표4 - 각국의 인구추이 예측]

단위 : 억명

	BRICs				주요 선진국			세계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미국	일본	독일	
2000	12.740	10.211	1.466	1.739	2.842	1.270	0.823	60.856
2005	13.158	11.034	1.432	1.864	2.982	1.281	0.827	64.648
2010	13.545	11.833	1.400	1.985	3.123	1.285	0.827	68.429
2015	13.930	12.604	1.367	2.094	3.257	1.280	0.825	72.194
2020	14.239	13.320	1.331	2.192	3.384	1.267	0.823	75.779
2025	14.414	13.955	1.292	2.279	3.501	1.248	0.820	79.052
2030	14.465	14.491	1.253	2.355	3.609	1.226	0.815	81.991
2035	14.430	14.943	1.217	2.417	3.707	1.201	0.809	84.633
2040	14.334	15.344	1.183	2.468	3.795	1.176	0.802	87.013
2045	14.169	15.677	1.151	2.506	3.875	1.150	0.795	89.074
2050	13.923	15.927	1.118	2.531	3.950	1.122	0.788	90.759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Revision*(<http://esa.un.org/unpp/index.asp>).

3. 친디아가 우리 나라에게 매력적인 이유

3.1 구매력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는 수 십 년 내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매해 전망이 나올 때 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40년경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2050년이 넘어서면 미국을 따돌릴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23억이 넘는다. 세계 전체 인구의 37%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미국을 몇 배나 뛰어넘는 엄청난 구매시장이라는 소리다. 싸구려 1달러짜리 상품 하나만 팔아도 23억불 어치를 팔 수 있는데 고부가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공략한다면 이 수치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세계시장이 침체에 빠져도 그 엄청난 내수 시장의 존재로 홀로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부러울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현재의 GDP로 세계2위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중국의 GDP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따라 구매력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가 발전해 중산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급스러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밖에 없다. 물론 다른 외국 기업의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설사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투입될 생산요소들에 대한 시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두 나라에서 꾸준한 발전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루어 질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구매처가 될 것이다.

3.2 제조업의 전진기지

중국과 인도는 선진 기업들의 제조 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 가난한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싼 임금에 대량의 노동력을 구할 수 있고, 인도의 경우에는 비싸기는 하지만 영어가 가능하며 수학에 뛰어난 고급인력도 풍부해 노동력에 대한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장점이 있다. 게다가 아시아권 국가로 한국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이다.

업종별 대 친디아 투자 현황

2005년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 분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부동산	서비스	기타	계
중국	금 액	10,578	513	291	228	251	597	12,458
	건 수	10,632	616	116	58	712	710	12,843
인도	금 액	664	106	1	0	16	3	790
	건 수	122	8	6	0	16	8	160
세계	금 액	29,863	12,131	965	1,174	2,997	8,698	55,828
	건 수	16,021	3,984	495	208	3,016	2,828	26,552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전체 투자액 중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80%를 넘고 있다. 또 중국에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이 인도의 투자액보다 16배 가량 많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 그 동안 우리 제조업체들의 저임금 인력 활용을 위한 투자대상지로서 최적의 기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중국 쪽에 쏠려있다고 해서 인도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인도의 거대한 시장과 인도의 값이 싸고 유능한 인적 자원은 충분히 우리 나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실제로 POSCO는 인도 오리사 주에 120억 달러를 들여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오리사 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 친디아는 우리 나라 기업에게 구매력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전진기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4.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

증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거나, 투자자금이 몰려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금 이었다. IMF이후 국내기업들의 치열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질 개선으로 인한 실적호전과 저금리 및 재테크 열풍으로 인해 국내 자금의 많은 양이 주식시장에 쏠리면서 증시가 상승한 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국내 기업의 체질개선과 향후 실적에 매력을 느낀 외국인의 '사자 열풍'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 면이 더 크다. 하지만 이런 외국 자본은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따라서 충분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약화 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아직 중국증권 시장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꾸준한 개혁 개방을 실행한다면 조만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고, 시장 상황 및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부분은 중국 및 인도 시장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자금의 대규모 유입보다는 기업들의 성장을 통하여, 누가 봐도 매력적인 주식을 많이 발굴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친디아의 성장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증시는 어느 방향을 갈지 예측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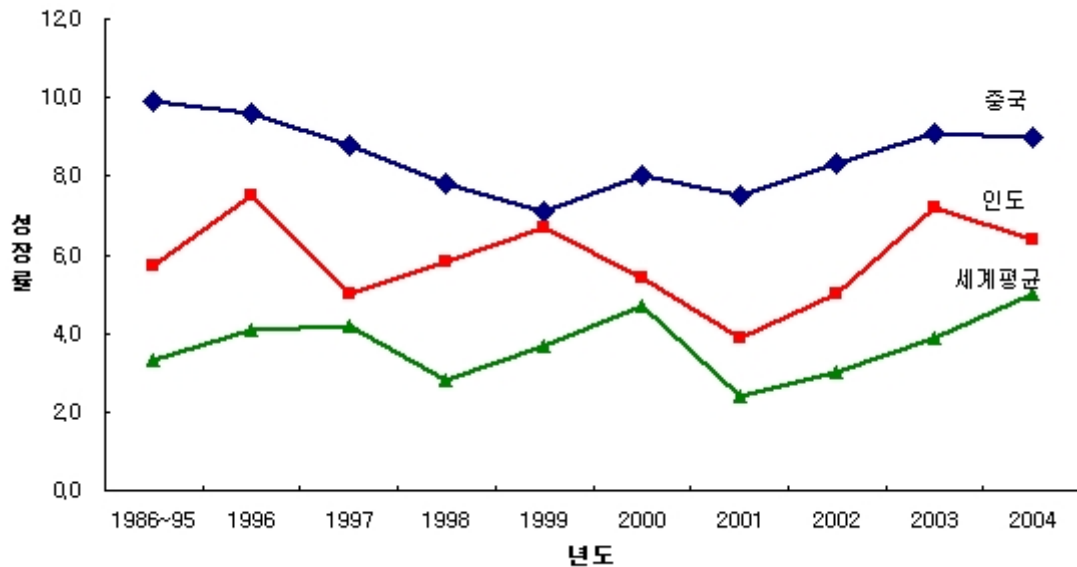
4.1 친디아의 경제 성장

4.1.1 친디아 경제의 성장 및 시장 잠재력

친디아의 경제 성장에 세계가 모두 놀라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평균의 2~3배를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방을 선언한 이후 20여 년 동안 세계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한 인도 역시 그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해오고 있다.

<그림> 친디아 경제의 성장 추이



자료 : IMF(2004),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4.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86~95년간 중국의 성장속도는 연평균 9.9%로 세계 평균 3.3%의 3배에 달하였으며, 인도는 같은 기간 중 5.7%씩 성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7~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인도 역시 5~6% 수준의 성장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력과 성장추이로 미루어본다면 중국은 최근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잠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미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인도가 최근 약진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아직 덜 발전한 만큼 향후 성장성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재 1인당 GDP는 2003년 기준으로 중국이 1,091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는 520달러로 세계 최저개발국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경제 성장을 통하여 실질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거대한 시장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4.1.2.1 친디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

다국적 기업들과의 무한경쟁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를 통하여 친디아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삼성전자의 휴대폰, anycall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명품으로 대접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신귀이주(新貴族)¹’의 상징이 되고 있다. 듀얼 폴더, 고화소 카메라, 화음 등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누구보다 먼저 시도하기 때문에 ‘신귀이주’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데 가장 좋은 소비재가 되고 있다. anycall의 선풍적인 인기로 2004년 삼성전자는 중국 CDMA 시장에서 점유율 28%로 1위, GSM은 12%로 3위를 기록했다.

Anycall뿐 아니라 현대 자동차도 쾌속 질주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중국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현대 자동차는 이듬해 5만2128대를 팔아 돌풍을 일으켰다. 중국 내 브랜드 별 판매순위는 12위였다. 이후 2004년 14만4088대, 2005년 23만3668대, 2006년 21만984대(1~9월 누계)를 판매하며 가속페달을 밟았다. 판매순위도 상해GM, 상해VW, 일기VW에 이어 4위에 올랐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연말 3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인도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산트로’(한국에서는 아토즈)를 앞세워 인도시장을 공략했다. 현대 자동차는 산트로 덕분에 2005년 기준으로 인도 업체들에 이어 3위를 기록 중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LG전자는 인도 주요 가전 제품 시장 -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 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1997년 인도에 진출한 이후 7년만인 2004년에 주요 가전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다. 인도인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LG전자의 가전제품일 정도로 LG전자는 인도시장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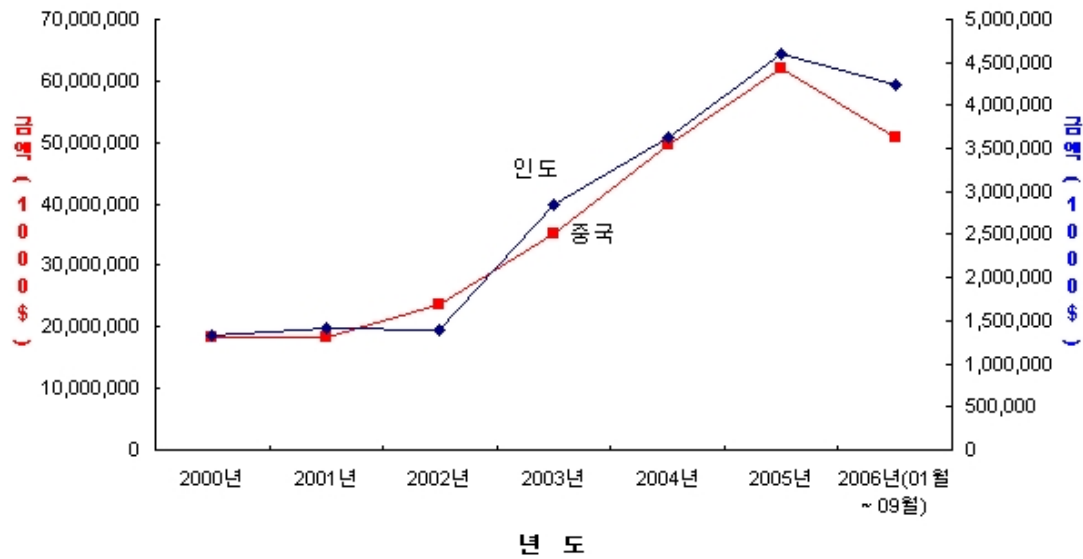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친디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기록하며 친디아에 대한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다음으로 친디아에 대한 수출액 추이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4.1.3 친디아에 대한 수출 증가세

위에서 언급한대로 친디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좋은 실적만큼 우리 나라의 대 친디아 수출액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그럼 친디아 시장에 대한 우리 나라의 수출 추이

¹ 연소득 55만 위안(8000만 원)이상을 가리킴.



출처 : 무역협회

년도별	중국		인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년	18,454,540	34.9	1,326,166	-2.7
2001년	18,190,190	-1.4	1,407,728	6.2
2002년	23,753,586	30.6	1,384,137	-1.7
2003년	35,109,715	47.8	2,852,952	106.1
2004년	49,763,175	41.7	3,631,978	27.3
2005년	61,914,983	24.4	4,597,837	26.6
2006년(01월 ~ 09월)	50,797,125	11.9	4,245,157	27.9

출처 : 무역협회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인디아 수출액은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해 왔다.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연평균 20%의 수출액 증가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품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도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인도는 늦은 시장 개방, 개혁으로 인하여 중국만큼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액도 중국의 12분의 1수준에 불과할 만큼 작은 규모이다. 향후 인도의 성장으로 수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액도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기업과 연관이 있는 내수기업의 이익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4.1.4 국내 증권 시장의 상승효과

앞에서 우리는 친디아 시장의 확대와 그 안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나라 기업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단위기업을 넘어서 친디아 시장의 성장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국, 인도 시장 공략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4.1.4.1 실적 증가율과 KOSPI 증가율의 관계

그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과 KOSPI 등락률



출처 : 동양증권 리서치 센터

위 그림은 국내 97년부터 06년까지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과 KOSPI 등락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주가가 미래 기대에 대한 반영이라는 점에서 당연하긴 하나, KOSPI 대표 기업들의 실적증가율을 1년 선행해서 KOSPI 주가 등락률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실적 증감률과, KOSPI 등락률은 거의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에서 제기했던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4.1.4.2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의 주가 추이

실적의 증가는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문제는 모든 기업이 친디아를 통해서 실적의 증가를 경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수출위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만이

친디아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디아를 통한 주식시장의 상승은 그 효과가 미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 생각은 달라진다.

그림 KOSPI 시장 기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주가 추이



출처 : Datastream

위 그래프를 보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친디아 수출 기업은 대부분 대형주, 중형주에 포함 될 것이고 대형주와 중형주에 중간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중형주 또는 소형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형주, 중형주의 주가 상승은 소형주의 동반 상승을 낳아 전체적으로 한국증시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주의 상승은 다른 주식들의 동반 상승을 불러온 만큼, 친디아의 존재 및 성장은 주춤해진 한국증시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

4.2 친디아로 인한 세계 증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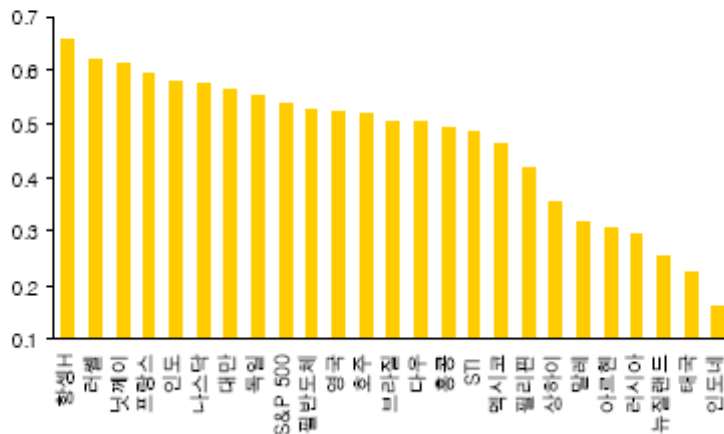
4.2.1 KOSPI와 세계 증시의 높은 상관관계

세계경제의 동향을 반영하는 미국 증권시장의 움직임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각국의 증권시장이 서로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증시의 동조화 현상(Comovement)은 투자자의 투자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증권시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별도의 시장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 시장을 구성함을 의미한다. WTO, FTA 등으

로 인한 무역 자유화는 기업의 국적을 불분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 시장을 통합시켰으며 FDI의 급증은 세계 자본의 국제적 유통을 가능케 하여 각국 증권시장의 연계성을 한층 증대시켰다.

KOSPI 주간 등락률과 주요국 52주 상관계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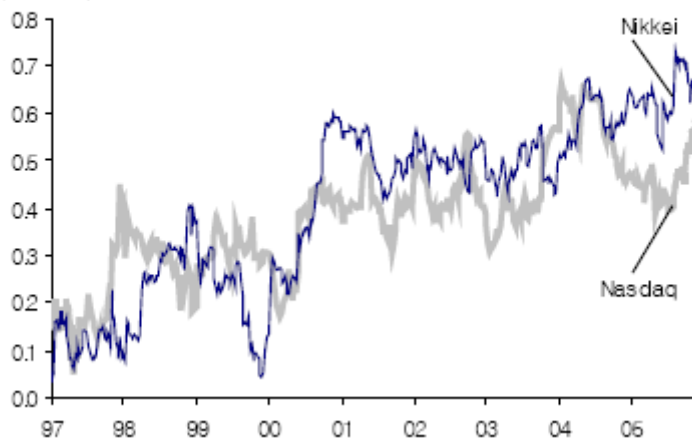
(52주 상관계수)



항생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에 가까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증시와 중국 및 일본 증시 움직임의 동향성(同向性)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인도증시와 0.6에 육박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향후 CHINDIA 시장의 성장이 우리나라에 예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KOSPI와 닛케이지수와 미국 나스닥 지수 상관계수 추이

(상관계수)



97년에는 미약하게 작동되던 KOSPI와 미국 및 일본 증시의 연동성은 최근 다소 떨어지기

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의 NYSE나 NASDAQ에 따라 투자심리가 움직이고 주가가 변동되는 연결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2.2 CHINDIA는 세계 증시의 원동력

CHINDIA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내 기업들이 CHINDIA시장을 적절히 공략하여 뛰어난 실적을 보인 경우 당연히 그 실적은 국내 주식시장과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세계 증시가 CHINDIA라는 호재를 맞아 투자심리 회복 등을 이유로 상승세로 돌아갈 경우 국내 증시 역시 그 상관관계로 말미암아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CHINDIA는 해외 자본의 차세대 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막대한 규모의 금융 및 산업자본이 활발히 CHINDIA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CHINDIA 증시의 상승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력원을 찾지 못해 정체 혹은 점증하던 선진국들의 증권 시장의 활황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 증시의 상승세는 기업 실적과 별도로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 거래량 및 물량 확대, 주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3 위안화 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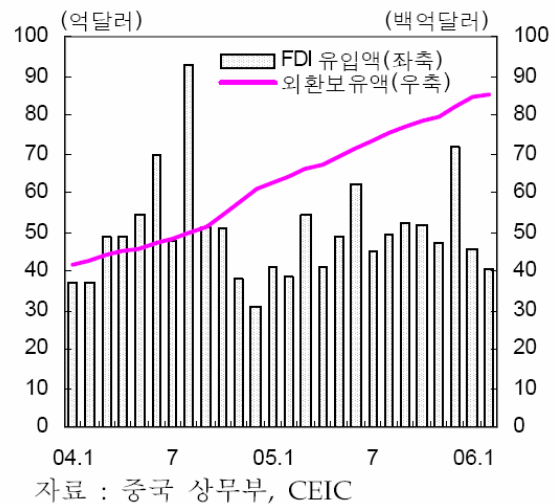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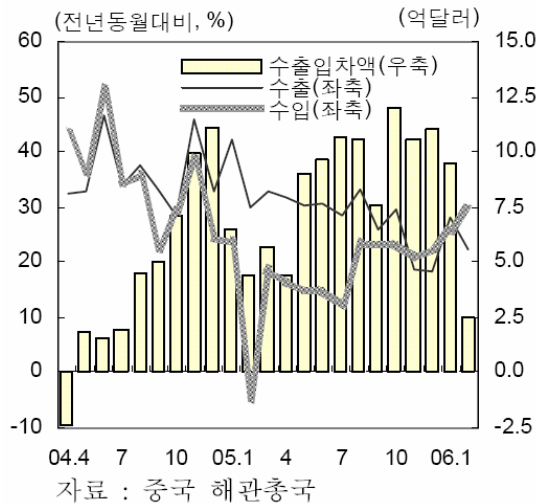
4.3.1 위안화 절상의 이유

달러 약세기가 도래하면서 환율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에 육박하고 대 중국 경상수지 적자의 폭이 1000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또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명목가치가 불변으로 남아있어 이를 시정하여 환율 시장에 자연스러운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중국으로서도 점증하고 있는 외채 문제를 위안화 절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픈 욕구가 있고 과다한 외환 보유로 인한 자원 낭비의 해소 및 수출 위축에 대한 충격을 이제는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위안화의 절상은 사실상 시기의 문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중국의 무역수지, FDI유입액, 외환보유액 추이



4.3.2 위안화 환율 추이

2005. 7. 21	2005. 12월말	2006. 8월말
2.1% 절상	0.5% 절상	1.4% 절상
(8.2765 → 8.11 RMB/\$)	(8.0702 RMB/\$)	(7.9598 RMB/\$)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 하에 중국 당국에서도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을 시도 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05년 이후 대략 3%가까이 위안화가 절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에 비해 위안화는 평가절하된 측면이 없지 않아 추후 더 절상될 가능성이 많다.

4.3.3 절상의 영향

위안화 절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주변 아시아국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강해져 궁극적으로는 주변국 통화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엔화의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의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수출에서 양국간 상호 비중이 작아 엔화 절상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절상은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저임 노동력 등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한 우리나라의 현지 법인들의 경우에 제 3국 시장 개척을 위한 진출이 수출수입 감소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반면에 위안화의 절상은 중국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그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검증 받은 시장이고 문제는 구매력의 수준이다. 위안화의 절상은 중국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가격효과를 불러 와 수입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중산층 혹은 최상층을 타겟팅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분한 구매력을 지닌 10억의 시장은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다.

4.4 결

CHINDIA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적이다. 일률적으로 호재니 악재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틀림없이 기회는 있다. 시장 그 자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잠재적 구매층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눈부시다. 세계 증시 전체의 동향도 낙관적이다. 위안화 절상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지만 수입 수요의 증가는 역시 긍정적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한국 증시는 CHINDIA를 발판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Ⅲ. 맺으며

BRICS, CHINDIA라는 신조어가 생긴 이후 세계의 이목은 중국과 인도의 신흥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팽창과 성장을 필요로 한다. 선진국의 정체된 시장으로 숨이 막혀오던 인류의 자본주의사(史)에 CHINDIA는 그 가능성만으로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막연한 가능성을 구체적 실체로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CHINDIA의 가능성은 자기실현적 예언과 같이 인류에게 작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23억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폭발적인 흡입력을 보이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 1%만 점유해도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진장의 성공이 눈 앞에서 기다린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증시에게 CHINDIA는 달콤한 기회의 땅이다. CHINDIA를 세계 경제의 대세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 일 것이다.